

석유·가스 등 에너지 시장 2014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I.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전망	1
II. 석유·가스 시장 동향	4
1. 업스트림(Upstream) 산업	4
2. M&A 거래	11
III. 주요 이슈	12

확인 : 팀장 이윤관 (6255-5710)
lyk@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 요약 >

- (유가) 7월 이후 달러화 강세, 공급 확대, 수요둔화 우려 등으로 가격하락세를 지속하며 9월 말 연중 최저치(9.30일, \$91.16/bbl) 기록, 10월 말 현재 배럴당 80달러선까지 하락
 - 천연가스 가격은 7월말 연중최저치 기록 이후 수요 감소, 재고 증가 등으로 mmBtu당 4달러 수준의 가격약세 지속
 - 유연탄 가격도 수요둔화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며, 9월 말 연중 최저치 기록(9월 29일 \$64.55/ton)
- (에너지 가격 전망) 미 에너지 정보청(EIA)은 2014년 평균유가(WTI油)를 전년대비 배럴당 0.19달러 낮은 97.72달러로 전망
 - EIA는 2014년 미국 천연가스 가격(Henry Hub 현물)을 전년대비 mmBtu당 0.72달러 상승한 4.45달러로 전망
- (석유·가스 업스트림 산업 동향) 최근 유가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은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석유·가스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전망
 - 미국 ExxonMobil, Chevron 등 거대 석유메이저 기업과 Kosmos, Anadarko 등 독립계 기업 등이 아프리카 대규모 광구를 취득하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일본 석유회사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업스트림 사업 운영권 획득 여부를 포함하여 2020년 이후 예상되는 LNG 수출 가능성을 두고 멕시코 진출 여부 검토
- (주요이슈 : 최근 국제유가 하락 원인 및 향후 전망)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셰일가스의 영향 등으로 급락, 당분간 유가약세가 지속될 전망
 - 국제유가는 주요국 수요 둔화 우려, 경질유 공급 증가,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7월 이후 급락하여 10월 말 배럴당 80달러 수준 기록
 - 일본, 유럽 등 경기침체에 따른 원유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고, OPEC 감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당분간 유가 약세가 지속될 전망
 - 유가하락으로 고비용 프로젝트들, 가령 캐나다 오일샌드 프로젝트, 북극·대서양 심해유전 개발 등의 연기·중단이 이어질 가능성 존재

I.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전망

1. 에너지 가격 동향

□ (석유) 7월 이후 달러화 강세, 공급 확대, 수요둔화 우려 등으로 가격하락세를 지속하며 9월 말 연중 최저치 기록

- 7월 초 105.34달러(WTI油)에서 미 달러화 강세, 리비아 유전가동 재개에 따른 수출회복 기대감으로 99.96달러(7월 15일)까지 하락
- 8월 초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후반 대를 유지했으나 중순 이후 달러 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럽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90달러 초반대로 하락(\$93.45/bbl, 8월 20일)
- 9월 들어 미 고용지표 악화, 유럽 경기회복 둔화, 중국 산업생산 및 소비판매 증가율의 전망치 하회 등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유가 약세 지속
 - 더불어 미 달러화 강세, 리비아 생산회복 등 공급 증가도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여 9월 말 배럴당 91.16달러로 마감
- 10월 말 현재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를 기록하며 하락세 지속

□ (천연가스) 7월말 연중최저치 기록 이후 가격약세 지속

- 6월 중순 예년대비 낮은 기온에 따른 냉방수요 감소, 천연가스 재고 증가 등으로 가격 하락을 지속하며 7월말 연중 최저치 기록(\$3.747/mmBtu, 7월 28일)
- 7월 말 연중 최저치 기록 이후 3달러 후반 ~ 4달러 초반대에서 가격 약세 지속

□ (전력용 유연탄) 수요둔화 우려로 하락세, 9월 말 연중 최저치 기록

- 8월 중순 70달러대를 회복(8월 15일 \$70.04/ton)하였으나 8월 말 수요 둔화 우려로 재하락하여 70달러선 붕괴
- 수요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8월 말 70달러선이 붕괴되며 9월 말 연중 최저치 기록(9월 29일 \$64.55/ton)

- (우라늄) 원전 수요 침체로 인한 가격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최근 일부 우라늄 광산의 생산중단 등으로 인해 우라늄 가격이 반등하여 연중 최고치 기록(8월 29일 \$32.5/lb → 9월 18일 \$36.75/lb)

< 주요 에너지 가격 추이 >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1/4	2/4	3/4	연중 최고	연중 최저
유가 (\$/배럴)	WTI	91.82	97.23	96.56	102.33	98.42	101.58	105.37	91.16	107.26 (6.20.)	91.16 (9.30.)
	Dubai	107.81	107.07	100.38	103.58	107.88	104.44	109.29	95.01	111.23 (6.23.)	94.94 (9.16.)
천연가스 (\$/백만BTU*)		3.35	4.02	3.57	3.56	4.23	4.37	4.46	4.121	6.149 (2.19.)	3.747 (7.28.)
유연탄(전력용) (\$/ton)		93.75	89.86	77.85	79.15	87.25	74.55	70.31	64.65	85.75 (1.3.)	64.55 (9.29.)
우라늄 (\$/lb)		43.5	42.25	39.65	35.25	34.5	34.25	28.25	35.5	36.75 (9.18.)	28.00 (5.19.)

주) 유가는 WTI油 선물 익월물(NYMEX)/브렌트油 선물 익월물(ICE)/두바이油 현물가격, 천연가스 선물 익월물(NYMEX), 유연탄은 뉴캐슬(ICE), 우라늄은 NYMEX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국제금융센터, KoreaPDS

2. 에너지 가격 전망

- (유가전망) EIA는 2014년 평균유가(WTI油)를 전년대비 배럴당 0.19달러 낮은 97.72달러¹⁾, 2015년은 94.58달러로 전망
- (수요전망) 2014년 세계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102만 b/d 증가한 9,147만 b/d가 될 전망, 2015년에는 약 124만 b/d 증가한 9,271만 b/d가 될 전망
 - 2014년 비OECD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122만b/d 증가한 4,563만 b/d, 2015년은 전년대비 107만 b/d 증가한 4,670만 b/d가 될 것으로 전망
 - (공급전망) 2014년 세계 원유 공급은 전년대비 161만 b/d 증가한

1) 발표시기는 2014년 10월

9,176만 b/d, 2015년에는 91만 b/d가 증가한 9,267만 b/d가 될 전망

- OECD 지역의 공급은 북미 타이트 오일, 오일샌드 등 비전통 석유 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4년 원유 생산량이 전년대비 174만 b/d가 증가한 2,543만 b/d가 될 것으로 예상
- 2014년 OPEC 공급은 전년대비 25만 b/d 감소한 3,578만 b/d 전망
- EIA 등 주요 유가전망기관들은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비전통 석유 공급 증가 등에 따른 유가 약세를 예상하며 국제유가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

(단위: \$/bbl)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13	2014		2015				
		평균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CERA (14.10.7)	Dubai	105.56	98.44	102.62	102.50	101.79	102.10	100.93	101.83
	Brent	108.66	100.00	104.92	104.67	103.83	104.00	102.50	103.75
	WTI	97.90	91.78	97.77	89.19	91.12	88.32	84.67	88.33
EIA (14.10.7.)	WTI	97.90	91.00	97.72	92.67	94.67	97.00	94.00	94.58
PIRA (14.9.22.)	Brent	108.66	94.15	103.45	94.00	90.65	90.85	91.15	91.65
	WTI	97.90	87.35	96.60	85.85	83.00	83.85	81.65	83.60

주)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 (천연가스) EIA는 2014년 미국 천연가스 가격(Henry Hub 현물)을 전년대비 mmBtu당 0.72달러 상승한 4.45달러²⁾가 될 것으로 전망

- (소비전망) 2014년 미국 천연가스 소비가 전년대비 11.7억 cf³⁾/d(1.64%) 증가한 725.1억 cf/d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발전용 수요는 전년대비 감소하나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수요가 전년대비 상승하며 전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전망

2) 발표시기는 2014년 10월

3) cf(cubic feet, 입방피트)는 가스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천연가스 1Mcf는 석유 0.178205 배럴에 해당

- 특히 발전용은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은 전년대비 5.2억 cf/d(2.3%) 감소한 218.2억 cf/d가 될 전망
- (공급전망) 2014년 미국 천연가스 공급은 전년대비 11.0억 cf/d 증가한 728.3억 cf/d 수준이 될 전망

II. 석유·가스 시장 동향

1. 업스트림(Upstream)⁴⁾ 산업

가. 중동/아프리카

- 리비아, 최대 유전 Sharara 생산이 7월 8일 오후부터 가동 재개
 - 전문가들은 생산 중단 기간을 고려할 때, 34만 b/d 규모의 동 유전 생산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Sharara 유전은 리비아 국영 석유기업 NOC와 스페인 Repsol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반군이 수출 터미널인 Zawiya와 유전을 연결하는 송유관을 점거하여 올해는 사실상 원유 생산이 중단되었던 상황
- 모잠비크, 석유가스 개발 증진을 위한 석유법 개정안 국회 통과 (8월 14일)
 - 모잠비크 석유가스 개발 촉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법 개정안이 8월 14일 모잠비크 국회 통과
 - 모잠비크 정부는 석유법 개정을 통해 유망 석유회사들의 가스개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국 생산량 증가 기대
 - 금번 개정안에는 모잠비크의 주요 가스전이 분포하고 있는 Rovuma 분지 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내용도 포함
 -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내 최대 가스 매장 국가로 약 184 Tcf의 가스 부존 예상

4) 석유·가스산업은 크게 ① 유전 탐사·개발·생산 ② 원유 수송 ③ 원유 정제 ④ 석유제품 수송 및 판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① 부문을 업스트림(Upstream), ② 부문을 미드스트림(Midstream), ③ 이후 부문을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구분

- 주요 가스전이 분포하고 있는 해상 Rovuma 분지에 현재 Anadarko와 Eni가 운영권자로서 가스를 개발 중이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LNG 수출설비 건설 중
- 다만 개정안에는 자국 생산 석유·가스 중 최소 25%를 국내의무판매 및 석유가스 생산 지역사회 수익금 분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모잠비크 정부는 국제 석유기업들의 사업 추진 시, 국영석유회사 ENH(Empresa Nacional de Hidrocarbonetos)의 지분참여권 보장을 규정
- 한편 전문가들은 모잠비크 내 예측하지 못한 정정불안이 발생할 경우 자산 국유화 및 징벌적 과세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지적

나. 유럽

□ 영국, 셰일자원 개발 관련 엄격한 인허가절차 등으로 인해 개발 지연

- 영국 Celtique Energie는 잉글랜드 남부 Weald 분지에 대한 탐사 시추 허가 취득에 실패했다고 발표
- 영국지질연구소는 금년 초 잉글랜드 남부 Weald 분지의 셰일오일 자원량이 22억 ~ 86억 배럴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동사의 탐사시추 예정지는 사우스다운국립공원 소재로, 시추에 필요한 사우스다운국립공원 관리사무소(SDNPA : South Downs National Park Authority)의 허가를 득하지 못함
 - SDNPA는 국립공원 내 탐사를 위해서는 공익을 위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Celtique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영국 육상석유가스협회(UK Onshore Oil & Gas)는 영국의 육상 자원 개발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준이라고 비판

□ 폴란드, 셰일가스 유망 3개 탐사광구에서의 사업 철수

- 폴란드 셰일가스 탐사를 주도하고 있는 3Legs Resources는 최근

폴란드 북쪽 육상 Baltic 분지에 위치한 유망 3개 탐사광구 (20/2007/p, 45/2010/p, 18/2007/p)에서 발견된 가스 양이 상업성 획득에 불충분하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짐

- 동사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0년 이후 3개 광구에서 60개의 탐사정을 시추하였으나, 상업성 확보에 필요한 수준의 절반에 못 미치는 38만 cf/d의 가스가 발견됐다고 밝힘
- 또한 동사가 3개 광구에서 철수의사를 밝힘에 따라 폴란드 셰일가스 전망에 대한 우려 확대
 - 철수 배경은 추가 시추에 따른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짐
 -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폴란드에 약 183 Tcf의 셰일가스가 부존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업계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ExxonMobil, Marathon, Talisman 등의 주요 석유기업들은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 등을 이유로 폴란드 셰일가스 사업에서 철회를 결정한 바 있음

다. 러시아

☐ 러시아는 북극해, 비전통자원 등의 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세제혜택 제공

- 러시아 정부는 6월 30일, 북쪽 Gydan과 Yamal 반도, Nenets 지역과 동시베리아, 극동 해역에 광물생산세(Mineral Extraction Tax, MET) 감면 또는 세율 인하를 승인했음을 밝힘
 - 2022년까지 프로젝트들이 완공되면, Sakha 공화국(Yakutia), Irkutsk 주와 Krasnoyarsk 지역 신규 유전의 유전별 누적생산량이 1.8억 배럴(2,500만 톤)에 도달할 때까지 MET를 징수하지 않을 예정
 - Yamal 북극해 지역과 Nenets 주에서도 2022년까지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MET 비율이 표준 세율 15% 보다 낮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정부는 2013년 7월 처음으로 비전통자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바 있음
 - 비전통자원 개발을 위해 수평파쇄를 적용한 유전의 생산 감모율

(Depletion Ratio)이 13% 이하일 경우에는, Bazhenov, Achimov, Khadum, Domanic 저류층에도 MET 감면 예정

□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제재로 인해 일부 러시아 사업에서 서구 메이저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음

- 최근 미국, EU에 의한 러시아 제재로 인해 서방의 자금, 기술이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
 - 8월초 미국의 제재는 러시아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수준이었으나 9월 12일에는 북극해·심해·셰일오일 개발과 관련해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도 금지한다는 보다 명확한 내용을 발표
- Total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9월 22일 서시베리아 셰일오일을 탐사하기 위해 설립한 러시아 Lukoil과의 합작기업 활동 중지 발표
 - 러시아 셰일오일 매장량은 미 에너지부(DOE) 추산으로 75억 배럴에 달하며, 러시아는 향후 10년 간 원유생산의 새로운 추진동력으로서 셰일오일 개발을 시도하고 있음
- ExxonMobil도 Rosneft와 진행하던 북극해 탐사 사업에서 철수
 - ExxonMobil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북극 카라해 Universitetskaya-1 탐사정에서의 조업 일체에 대한 사업 철수 동의를 받음
 - ExxonMobil의 북극해 사업 철수는 러시아 북극해 개발을 주도하는 Rosneft에게 큰 타격이 될 전망
- 일부 사업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Shell과 Total은 러시아 내 조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 표명
 - Total 러시아 지사장은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자사의 러시아 내 생산량이 2020년경 40만 boe/d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 Shell의 러시아 지사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사업을 지속할 것이며, 러시아에서 보유 중인 자산 대부분이 금번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힘

라. 미주

□ 미국의 아프리카 원유 수입 급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에너지 기업의 아프리카 석유산업 투자에 대한 관심 지속

- 원유 등 에너지 부문은 오랜 기간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핵심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원유 교역량 급감
 - 미국은 지난 수십 년 간 아프리카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였으나 최근 셰일자원 생산 확대에 의해 2014년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량이 90% 이상 감소
- 원유 교역량은 감소했으나, 미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석유산업 투자에 대해 관심은 여전히 높음
 - 앙골라와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이남 전통적인 아프리카 원유생산국이며, 최근에는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 동부 아프리카가 막대한 가스매장량과 아시아 시장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LNG 수출지로 부상
 - 미국 ExxonMobil, Chevron 등 거대 석유메이저 기업과 Kosmos, Anadarko 등 독립계 기업 등이 아프리카 대규모 광구를 취득하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아프리카 석유사업은 열악한 인프라, 낮은 수준의 인적자원, 부패 만연, 원유 절도 등 여러 문제점들 존재
 - 또한 석유관련 법제의 불확실성과 서명보너스 등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
- 하지만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원유 수요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아프리카의 석유산업 전망은 여전히 밝을 것으로 기대됨

□ 아르헨티나 국영기업 YPF, 자국 내 세 번째 비전통 원유 발견에 성공

- 아르헨티나 국영 YPF가 Vaca Muerta 외에 자국 내 비전통원유 발견에 성공했다고 발표
 - 금번 발견은 아르헨티나 내 세 번째 비전통원유 발견으로서 칠레와 국경지역인 Neuquen 주 북부 Filo Morado 광구 Agrio 저류층임

- YPF는 금년 비전통자원 원유, 가스 생산이 전년대비 각각 5%, 18%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올해 현재까지 Chevron과 공동으로 시추한 Vaca Muerta 플레이 내 200공을 시추했고 남은 하반기에 100여공을 더 시추할 계획
 - ExxonMobil, Shell, Total사도 현재 Vaca Muerta 세일 플레이에서 탐사 작업 중

마. 아시아/호주

□ 한국가스공사, LNG 캐나다사업 지분 5% 추가매각 추진

- 한국가스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연말까지 LNG 캐나다사업 지분 5%의 추가매각 추진
 - 동 사업 컨소시엄은 British Columbia 주 서부 소재 Kitimat에서 LNG 연간 1,200만톤(약 576 bcf) 생산을 목표로 2013년 5월 구성되어, 2015년까지 최종 투자결정 및 개발승인,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개발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운영권자 Shell에 지분 5%를 매각한 이후, 현재 가스공사의 LNG 캐나다 15% 지분이 남아 있음
 - Shell에 5% 지분 매각대금은 1.62억 달러(1,640억원)로 알려짐
 - 현재 LNG 캐나다 사업의 지분은 운영권자 Shell 45%, Petrochina와 Mitsubishi가 각각 20%, 가스공사 15%로 구성
 - 한국가스공사는 금년 내 지분 5% 추가매각을 목표로 잠재적 구매사에 보낼 제안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잠재적 구매사 이름이나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음
- 한국가스공사는 국부의 해외유출방지차원에서 한국 기업에 지분을 매각하고 재무적 투자자 유치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일본 JX Nippon, 멕시코 광구분양과 브라질 해상광구에 관심 표명 (8월 25일)

- 일본 JX Nippon Oil & Gas Exploration는 현재의 생산량 11.5만 boe/d를 2020년까지 20만 boe/d로 확대하기 위해 멕시코와 브라질의 상류 자산 확보를 고려 중에 있음
 - 운영권자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산을 선별 중으로 멕시코의 멕시코만 심해지역과 브라질 해상 지역은 잠재력이 높은 미개발 지역으로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사는 현재 전 세계 14개국에 8.08억 배럴의 매장량(2P)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사업 지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북해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 확장 계획
 - 올해 예상 생산량은 13.6만 boe/d로, 2016년 3월까지 40공의 탐사정을 시추할 계획

□ 일본, 인도와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 협력관계 지속

- 일본 경제무역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JOGMEC과 인도 국영 ONGC(Oil and Natural Gas Corp.)가 메탄하이드레이트 공동개발에 대해 논의
 - 금번 논의는 METI 장관과 인도 기획위원회 부의장간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관련 상호협력협정 서명에 이은 것
 - 이 논의에서 일본은 2013년에 수행한 세계 최초의 해상 메탄하이드레이트 생산시험 및 천해 메탄하이드레이트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짐
 - 모임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인도 해상의 메탄하이드레이트 관련 연구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은 또한 인도가 국립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센터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

□ 일본 주요 석유회사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멕시코 업스트림 산업 진출 검토

- 일본 정부는 멕시코를 전략지역으로 설정하고 멕시코 석유·가스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공언

- 지난 7월, 일본 총리의 멕시코 방문 기간 동안,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과 JOGMEC은 멕시코 Pemex와 석유가스 부문 협력에 대한 MOU 및 기술협력에 대한 상호 조약 체결
- 멕시코는 우선 합작기업 설립을 통한 직접 협상으로 광구를 분양하고 내년 공개 광구분양을 실시할 예정
- 일본 석유회사들은 업스트림 사업 운영권 획득 여부를 포함하여 2020년 이후 예상되는 LNG 수출 가능성을 두고 멕시코 진출 여부 검토
- 일본 최대 업스트림 기업인 Inpex, JX Nippon Oil & Gas Exploration이 멕시코 진출하는 방안 고려
- 올해 5월 Mitsui & Co는 Pemex와 석유가스 상류부문과 마케팅, 인프라 부문 사업 협력에 대한 MOU 체결

2. M&A 거래

- 호주 AWE, 중국 보하이만 소재 09/05 해상광구 지분 40%를 호주 독립계 운영권자 ROC로부터 취득
 - AWE는 09/05광구는 시추·개발비용이 낮으며, 기존 인프라와 가깝고 세제 조건이 유리하다고 밝힘
 - 09/05광구는 보하이만 서부에 위치한 면적 335km², 수심 5~10m인 자원이 풍부한 광구로, 중국 최대항구인 탕구(Tanggu)항에서 남동쪽 10km 지점에 위치
 - 운영권자 ROC는 2012년 5월에 중국 국영 CNOOC로부터 09/05광구 지분 100%를 취득했으며, 금번 거래로 지분이 60%로 감소
- 일본 Mitsubishi, 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해상 CI-103 광구 지분 20%를 미 Anadarko로부터 매입
 - Mitsubishi는 동 지분 매입에 대한 코트디부아르 정부 승인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분거래 대금 등 상세 조건은 비공개
 - 동 광구는 코트디부아르 해상 50km, 수심 2,000m 지역에 위치하며 올해 10월에 탐사정 시추와 2015년 말 최종투자결정(FID)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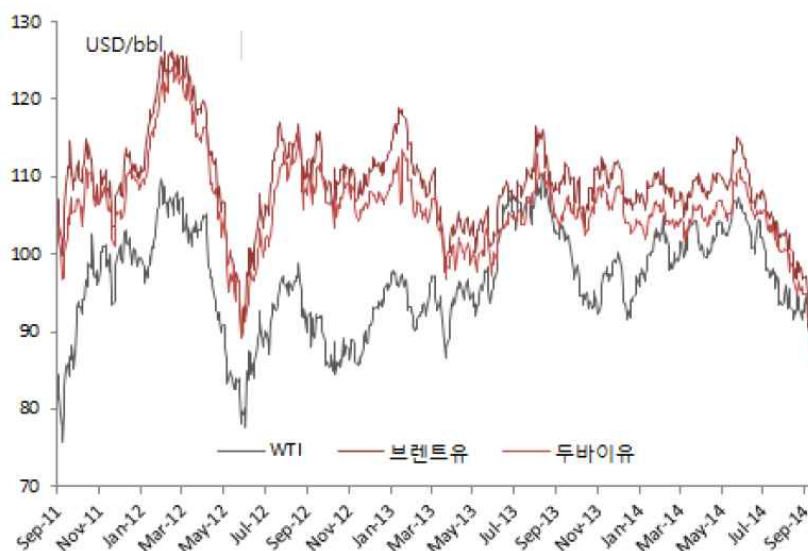
- Mitsubishi에 따르면 2019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으로 최대 생산량은 6만 b/d 수준
- 금번 거래 이후 CI-103 광구 지분구조는 Anadarko가 여전히 운영권자로서 35%, 영국 Tullow Oil 30%, 코트디부아르 국영 Petroci 15% 보유
- 금번 거래는 Mitsubishi의 첫 번째 코트디부아르 진출 사업으로, 동사는 가봉과 앙고라 등 서 아프리카에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참여를 결정

III. 주요 이슈 - 최근 국제유가 하락 원인 및 향후 전망

1. 국제유가 하락 원인

-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며,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며 10월 말 현재 배럴당 80달러 수준 기록
- 유가하락은 수요둔화 우려, 경질유 공급 증가, 지정학적 불안요인 완화, 달러화 강세 등에 기인
- 그 동안 WTI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도 하반기 들어 가격 급락세

최근 국제유가 동향



자료: Koreapds

가. 수요 둔화

- 유럽, 일본 등 주요국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전망
 - 유럽은 디플레이션 우려 심화, 독일 경제 위축 등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 축소
 -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주가 상승 및 엔화 약세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양상

나. 경질유 공급 증가

- 미국 셰일가스 붐에 따른 타이트오일 생산량이 급증하였고, 리비아 생산량이 회복되는 등 세계 경질유 공급 확대
 - 미국 타이트오일 생산량은 2006년 20만 b/d에서 2014년 407만 b/d로 증가할 전망
 - 리비아는 반군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가동이 중단되었던 원유생산 설비가 하반기 들어 생산을 재개함에 따라 생산량이 상반기 22만 b/d 수준에서 9월 기준 74만 b/d로 급격히 증가

다. OPEC 공급량 미조정

- 유가하락세에도 불구하고 OPEC 회원국들은 원유 공급량을 조정하지 않고 있음
 - 작년 4월 유가 100달러선이 붕괴되었을 때 OPEC이 감산 의지를 밝힌 적이 있었으나 이후 유가가 반등했고, 실제 감산은 하지 않았음
 - 올 하반기 유가하락에 따라, OPEC 사무총장이 11월 예정된 정기회담에서 내년 목표 생산량을 3,000만 b/d에서 2,950만 b/d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피력했으나 OPEC 회원국들간 감산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
 -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감산을 통한 유가 상승을 주장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배럴당 80~90달러 수준의 유가가 문제없다고 언급하는 등 생산량 감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OPEC이 감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즉 현재의 유가 약세 원인에는 공급 요인도 있겠으나 수요둔화에 따른 것으로, 감산을 통해 유가를 지지한다 해도 결국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유가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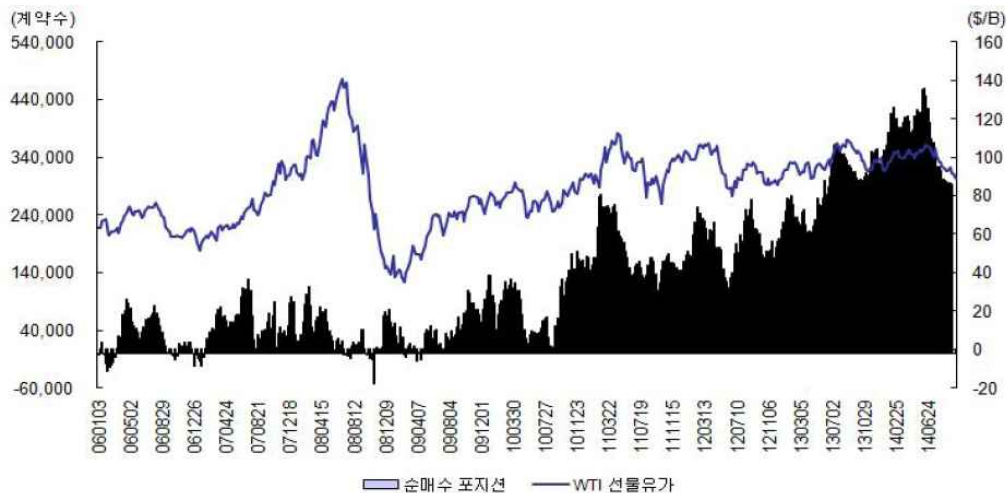
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 이란의 핵협상 본격화에 따른 원유생산 회복, 리비아의 석유수출량 및 유전 운영 재개 확대, 이라크 남부 유전 생산 지속,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교전에도 불구하고 석유공급에 큰 차질이 없는 등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도 유가하락에 기여

마. 국제금융요인

- 달러화 강세, 석유선물시장의 자금 유출 증가 등 수급 이외의 금융 요인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NYMEX의 순매수 포지션 동향



자료: Petronet

2. 향후 전망

□ 당분간은 유가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성장 둔화세,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 등에 따른 원유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고, OPEC 감산 가능성이 높지 않아 유가 약세가 지속될 전망
- IEA는 올해 원유 수요 증가폭 전망치를 5년래 최저치 수준으로 하향 조정
- OPEC은 감산보다는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판매가격 인하정책을 취하고 있음

□ 유가하락으로 인해 고비용 프로젝트들의 연기·중단이 이어질 전망

- 탐사개발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한편 최근 유가 하락으로 영국 CTI(Carbon Tracker Initiative)가 석유메이저들은 수익창출조건이 유가 배럴당 95달러 이상인 프로젝트들은 연기 또는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동 보고서는 유가가 95달러 이상인 경우에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세계 7대 메이저 기업⁵⁾이 향후 10년간 약 5,48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
- ConocoPhillips와 Shell이 최소 유가 95달러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비중이 각각 36%와 30%로 가장 높고, Eni와 BP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 연기 또는 중단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들 대부분은 캐나다 오일 샌드 프로젝트와 북극·대서양 심해유전 등
- 이미 메이저기업들은 투자비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프로젝트들이 연기 또는 재검토 중에 있음
- 캐나다 오일샌드부문에서는 Total과 Suncor가 110억 달러 예산규모의 Joslyn사업을, Shell은 Pierre River사업을 중지시킴
- 심해·초심해 프로젝트 역시 손익분기점이 높아 재검토 또는 연기된 사업이 다수 존재

5) BP, Chevron, ConocoPhillips, Eni, ExxonMobil, Shell, Total 등

< 참고자료 >

1. www.koreapds.com
2. Petronet.co.kr
3.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2013.10월)

(끝)